



강승임 글 | 안상정 그림 | 정가 12,000원
발행일 2021년 2월 10일 | 책속물고기

태그/주제어

#말 #자존감 #나다움 #공감 #회복 #사회성 #감수성 #성인지감수성
#인권감수성 #평등 #차별 #혐오 #고정관념 #관계 #감정표현 #존중 #자기계발

어떤 내용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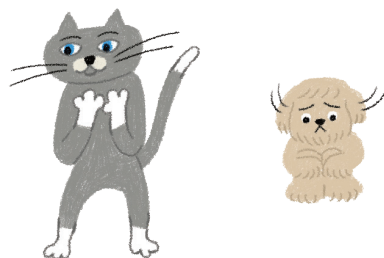
'나', '너', '우리'에게서 나를 지키는 말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말들을 주고받으며 산다. 그중 나를 주눅 들게 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말들, 나를 꿈쩍 못 하게 하는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말들이 있다. 이런 말들은 나 자신이 나에게 하기도 하고, 나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하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하기도 한다. 이럴 땐 격려와 응원이 가득 담긴 말, 잘못된 길로 가려는 내 생각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단단한 말들이 필요하다.

여기, 같은 반 열두 명의 아이가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들은 제각각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그래서 고민과 상처도 서로 다르다. 모두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여기는 아이도 있고, 자기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도 있다. 친구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도 있고, 거절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다. 성차별에 화가 난 아이도 있고, 차별이 일상이 된 다문화 가정 아이도 있다. 그런데 열두 아이의 상황에 딱 맞게 '말 처방'을 해 주는 친구들이 있다. 바로 고양이 쓰담이와 강아지 토닥이다. 두 동물 친구가 어떤 말을 전하는지 들어 보고 용기를 얻은 친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들여다보자.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열두 아이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어떤 말이 '나'를 위로하고 지켜 내는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선생님 도움말

이 책은 말에 관한 어린이 교양서입니다. 평소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듣는 부정적인 말을 열두 가지로 추렸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의 잘못된 점을 제대로 알려 주고, '긍정적인 말'을 제안하여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이끕니다. 책을 읽으며 특히 공감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뽑아 보고 '나'의 경우 어떤 말 습관이 있는지 점검하고, 어떤 말이 가장 필요할지 찾아보세요. 또한 올바른 말이 나의 생각과 행동,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살짝 엿보기

제목은 어떤 뜻일까요?

#내용 예측하기,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 제목을 보고 ‘나를 지키는 말’은 어떤 말일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기본 내용
파악하기

열두 친구의 고민에 대해 알아보세요

요약하기



- 미소는 어떤 고민이 있나요?

- “넌 몰라도 돼.”라는 엄마의 말을 듣고 수영이는 어떤 감정이 솟구쳤나요?
또한 그러한 감정이 생긴 까닭은 무엇일까요?

- 승재는 어떤 개성을 갖고 있는지 소개해 보세요. 이런 승재를 보고 무슨 말을 해 주고 싶나요?

-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서 나를 지키는 말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 써 보세요.

비판하기

나를 공격하는 부정적인 말

#옳고 그름 판단하기, 대안 생각해 보기



- 모둠 과제인 동영상 만들기 회의를 하면서 나히는 왜 화가 났을까요? 회의할 때 다연이의 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판해 보세요.

책 속 대화 엿듣기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히가 의기소침해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같이 생각해야지!”
 다연이는 또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환경 보호를 주제로 만들까?”
 나히는 다연이의 눈치를 보며 말했다.
 “환경 보호? 그건 너무 촌스럽고 뻔하잖아.”
 “참신하게 만들면 되지.”
 “그 주제로 어떻게 참신하게 만드냐? 그런 생각 자체가 틀렸어.”
 “뭐?”
 나히 얼굴이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랐다.

- 본문 55~56쪽

- 차별하는 말로는 어떤 말이 있으며 그 말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차별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차별이란?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에는 힘이 없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소수자는 인종, 문화, 종교적 배경으로 인한 편견이나 차별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인권마저도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애인은 편의 시설을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고,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는 피부색이 다르다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해요. 북한 이탈 주민은 직장을 구할 때 차별을 받고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과 근로 조건,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소수자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여 배타적인 생각을 버리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해요.

- 『학습용어사전 초등사회』(천재교육 편집부)

적용하기

나를 지키는 긍정적인 말

#일상에서 나를 지키는 말 찾아보기



- 내가 싫어하는 말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 말들을 싫어하는 까닭도 말해 보세요.

- 위에서 말한 내가 싫어하는 말들을 내가 좋아하는 말들로 바꿔 보세요.

상상 및
적용하기

나랑 비슷한 고민을 가진 □□에게

#자기 경험과 연관 지어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 열두 친구들의 이야기 잘 읽었나요? 누구의 이야기에 가장 공감했나요?
그 친구에게 편지를 써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편지쓰기

편지를 쓸 때는 기본적인 형식에 따라 써야 합니다. 부르는 말, 첫인사와 안부, 사연(하고 싶은 말), 끝인사, 쓴 날짜, 보내는 사람 이름 등을 차례로 써 봅니다. 이 중 특히 사연을 쓸 때 책의 내용을 언급하고,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충고할 점 등을 다양하게 떠올려 써 봅니다.